

민속극 연원 찾는 '한국연극의 고고학'

정년 맞아 학문의 새 出口 연 민속학자 李杜鉉교수

“교수라는 직업이 원래 半자유업에 가까워서, 정년을 맞았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질 건 없습니다. 강의의 부담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은 넉넉하겠죠. 그래서, 이제까지처럼 직업으로서의 학문이 아닌, ‘道樂으로서의 학문’으로 내 생활을 즐기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한국민속학계의 해방후 제1세대로 40여년의 연구생활 동안 연극사 및 민속극 분야의 주목할 만한 업적을 쌓아온 李杜鉉교수(65). 지난 여름 30년간 봉직했던 서울대 강단을 물러나면서 동료교수와 후학들로부터 「정년퇴임기념논문집」(서울사대 국어교육과)을 봉정받은 데 이어, 그로서는 최초의 ‘雜文集’이 되는 「宜民堂隨記」(한샘)를 최근 상재했다. “스승의 효도로 문집을 엮어드리는 심정파도 같을 것이라 여겨” 제자들의 권고대로 “젊은 시인이 첫 시집을 자비출판하는 마음으로” 책을 펴냈다고 하는데, 말하자면 일종의 儀典의 의미를 지니는 책인 셈이다.

그런만큼 李교수의 보다 큰 관심은 정년의 한 통과제로 떠낸 이 책의 뒤를 이을 앞으로의 연구작업에 있다. 그에게 있어 정년은 결산이 아니라 더 깊은 학문의 길을 가능케 하는 새로운 출구가 된다.

철기문화와 샤머니즘의 접점에 관심

“우선은 우리 민속극, 그중에서도 탈놀이극의 연희적 요소들을 찾아내서 이론화하는 일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너무 벌러놓자 좀 좁혀야겠다’는 생각을 늘 해왔었는데, 이제는 정말 관심있는 특정 분야에 집중적으로 파고들

작정입니다.”

특히, 제석극의 도둑잡이놀이, 천왕극의 관현놀이, 별상극의 마마배송놀이 등이 풍부한 연희적 요소를 간직하고 있어 흥미롭다는데, 그 연극적 변용의 맥락을 체계화함으로써 서구적 의미의 예술적 무대극으로 정착되지 않은 우리 민속극의 고유한 가치를 규명할 수 있리라 하는 것이 李교수의 생각이다. 이같은 민속극의 원형탐색이 한편으로 요즘 마당극의 형태로 재현되고 있는 민속극의 현대적 계승에도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李교수는 또한 믿고 있다.

이와함께 그가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샤머니즘과 철기문화의 관계. 이는 우리 민속극의 가장 근원적인 발생론적 탐구에 맞아 있는 것으로, 우선 李교수는 세습巫인 당골무당과 冶匠의 관계에 주목한다.

“시베리아 무속에서 대장장이는 샤먼의 삼촌으로 비유되죠. 鐵이 가지는 ‘매직파워’로 인해 샤먼과 마찬가지로 대장장이도 세습됩니다. 또, 대장장이는 巫具의 제작으로 샤먼과 실제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기도 하죠. 우리나라의 경우, 가령 珍島에 가보면 그같은 사실을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진도에는 ‘당골판’과 마찬가지로 성씨나 마을단위로 형성된 ‘야장판’이 아직 남아 있는 곳이 적지 않다는 것. 심지어 어떤 야장판은 3대째 세습되고 있는데, 이 모두가 샤먼의 자식들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李교수는 우리 민속극의 연원을 이루는 巫俗과 철기문화의 접점을 발견한다.

“역시 진도의 예이지만, 칼을 다루는 이발사

한국연극사와 민속극 연구의 선구적 업적을 일궈온 李교수에게 올여름의 정년퇴임은 보다 깊은 학문의 길을 여는 새로운 출구이다. ‘道樂으로서의 학문’을 말하는 그는 요즘 우리 탈놀이극의 연희적 요소, 철기문화와 샤머니즘의 관계 등을 규명하는 일에 몰두해 있다.



이두현교수

가 세습무당의 집안에 많다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또 제주도에는 가마솥을 마을의 신으로 받드는 곳이 있어 주목을 끄니다. 이로 미루어, 아직 성급하게 결론지을 때는 아니지만, 우리 민속극의 발생론적 연구는 철기시대의 초입으로까지 충분히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극사와 민속극 연구의 양수경장

1924년 함경북도 회령태생인 李杜鉉교수는 그 연배의 한국인이 대개 그렇듯 곡절 많은 현대사를 살아왔다. 3·1운동의 여파로 본고향인 함남 영흥을 떠나 러시아 망명길에 나섰던 선친이 회령에 주저앉아 그를 낳았다는 출생담부터가 그렇다. 또, 태평양전쟁 말기에 징병으

로 끌려가 蘇·滿국경의 산속에 배치된 채 해방된 줄도 모르고 있다가 한 日人장교의 귀뜸으로 동포부대원 10명을 이끌고 탈출, 1주일 밤낮을 걸어 간신히 고국으로 귀환하는 어려움도 겪었다.

해방 뒤에는 잠시 고향에서 교사생활을 하다가 1946년 2월 월남해서 서울대 사범대에 들어가게 되는데, 애초엔 희곡을 쓰겠다는 생각으로 안톤 체홉이나 로망 롤랑의 희곡집 등 희곡집은 안 읽은 것이 없을 정도로 모조리 섭렵했다. 그러던 그를 학문의 길로 접어들게 한 계기가 鄭鶴謨선생의 조선연극사 강의.

“1937년 경성제대의 학위논문으로 제출했던 김재철의 ‘조선연극사’가 강의의 텍스트였는데, 이걸 읽고 강의를 받으면서 한국연극사에

1개월만에 재판단행

컬러에화집

돈이 보낸 편지

대한출판문화협회로부터 청소년 모범 도서로 선정된 양서

이의용 지음

眞實은

단 한 마디의 말로도 전달될 수 있다.

3분이면 읽을 수 있는 짙막한 에화들.

예쁘고 재치있는 컬러삽화.

짧고 쉽고 맑고 깊은 메시지 72편.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해주는 현대판 명심보감.

독자대상 : 7세 ~ 77세

<2천8백원>

도서출판 대림기획

100-193 서울 중구 을지로 3가 286
275-5296 · 6295

이의용 에세이집

내 놀던 옛동산

‘고향은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

그 그리움이란

돈을 갖고 싶어하는 것과는 다른 것.

그렇지 않은 곳은 출생지일 뿐

고향은 아니다.

어머니와 고향을 가진 이는 행복하다!

결론을 독자에게 유보하는

참신한 수필 47편.

<2천원>

도서출판 대림기획

100-193 서울 중구 을지로 3가 286
275-5296 · 6295

이의용 칼럼집

고독이라는 교만

직장과 가정을 오가며

고달픈 경쟁과 스트레스에 시달려 낙심하는

고독한 직장인들에게 주는 산업칼럼.

‘인생은 고독한 것이다.

그러나 그 고독은 독선에서 나온다.

자기 중심적인 세계에는

언제나 고독의 샘물이 고일 수밖에 없다.’

기업, 사회, 직장인에게 주는

체험적 메시지 84편.

<2천5백원>

도서출판 대림기획

100-193 서울 중구 을지로 3가 286
275-5296 · 6295

자료

해방 4년의 출판계 實相 한눈에

각종 史料 · 통계자료 담은 「出版大鑑」 영인



해방후 4년간의 출판문화에 관련된 각종 사료와 통계자료를 수록한 「出版大鑑」(1949. 4. 15 발행)이 영인돼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당시 조선출판문화협회(회장 金昌集)가 기관지 「출판문화」의 특집호 별책으로 발행한 이 「出版大鑑」에는 「출판계 展覽」이라는 특집을 비롯해 해방 4년간의 출판서적목록일람표, 출판관계 제법령, 출판사명부, 서울시내 인쇄소명부, 남한일대의 서적상명부, 현행 정기간행물 일람표, 문화인명부, 출판小史, 48년도 출판서적분류통계표, 시내 저명출판사 소개 등이 망라돼 있어 이 시기의 출판문화사를 연구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값진 문헌으로 평가된다.

이 책에 따르면, 해방직후에는 정음사·고려문화사·유유문화사 등 몇몇 출판사만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47년도에는 출판사가 581개사에 950여종, 48년에는 출판사가 798개사에 1,157종의 책이 출판됐다.

출판목록에는 45년부터 48년까지 국내에서 출판된 도서 1,720종의 목록이 실려 있는데, 저·역·편자, 도서명, 발행소, 규격, 쪽수, 발행연월, 정가 등이 기록돼 있어 당시의 출판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다. 특히 분류방식이 요즘의 듀이식 십진분류법과는 달리 40여 분류로 세분돼 있는가 하면 규격도 대·중·소로만 표시돼 있는 것이 이채롭다.

또 당시에 활약하던 저명 문필가 및 정치인 4백여명의 「아호·별호·필명·예명 일람

표」와 문화계 인사 7백여명의 인적사항을 간략히 기록한 「조선문화인명부」는 한시대를 빛냈던 인물들의 면면들을 엿볼 수 있어 흥미를 준다.

이밖에 「출판계 전람」에 실린 「출판계의 4년」(金昌集), 「출판계의 회고와 전망」(崔暎海), 「아동도서의 출판」(李錫重), 「서적도매계 1년의 회고와 전망」(黃宗洙), 「해방4년간의 잡지계」(姜尙雲) 등은 혼란기의 출판계 사정을 알려주는 귀중한 글들이다. <보성사 / B5 / 108면 / 8,000원 / 300부 한정판>

한편 50년대에 개인에 의해 편찬 간행된 유일한 출판연감인 「1957 出版年鑑」(李漢國 편)도 영인 출간돼, 이 시기의 출판사료에 보탬이 되고 있다.

이 연감은 특히 1950-1956년 6년간에 출판된 5,536종의 도서목록과 함께 당시의 국정·검인정교과서 목록을 수록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出協에서 현재와 같은 「출판연감」을 발행한 것은 63년도부터의 일이다. <B6 / 746면 / 19,000원 / 100부 한정판>

본격적인 관심을 갖게 됐다. 그런데, 연극「史」를 하다보니 우리 연극의 연원을 찾아 고전문학으로, 다시 민속극과 사머니즘으로 관심이 확대되더군요. 그런 점에서 나는 연극사와 「연극의 고고학」으로서의 민속극 연구 두 길을 걸어온 셈입니다.”

출간 당시 그에게 한국출판문화상 저작상을 안겨준 첫 저서 「韓國新劇史研究」(1966)를 비롯한 「韓國演劇史」(1973) 등이 전자의 성과물이라면, 「韓國民俗學概說」(1974), 「韓國의 假面劇」(1979), 「韓國의 탈춤」(1981), 「韓國民俗學論考」(1984) 등은 후자의 연구업적으로 꼽힌다.

한편으로 李교수는 우리 민속극의 발굴과 보급에도 지대한 공헌을 한 것으로 사계의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양주별산대, 봉산탈춤, 진주오광대 등의 민속극이 일부 학자에 의해 산발적으로 채록되던 것을, 60년대 이후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지정조사에 참여하면서 그 거의 대부분을 正本의 형태로 발굴, 채록했거니와, 특히 민속극 보급에 쏟은 그의 열정은 남다르다.

70년대부터 각 대학의 서클에 인간문화재를 소개해 탈춤을 널리 보급하는데 앞장을 서왔고, 우리 민속극을 해외에 알리는 데도 적극적이다. 간혹 있는 외국인들이 댄 꼭 민속극 관련 슬라이드를 챙겨가 “외관원이 아무잡이나 들어가 물건을 팔듯” 이 대학 저 단체를 섭외해 “용케도 비릿살 좋게” 짧은 영어로 ‘슬라이드 렉처’를 진행 하는 등으로 우리 민속극을 해외에 알리는 일에 많은 공을 들여 왔다.

“놀이구경이 곧 공부니 얼마나 좋으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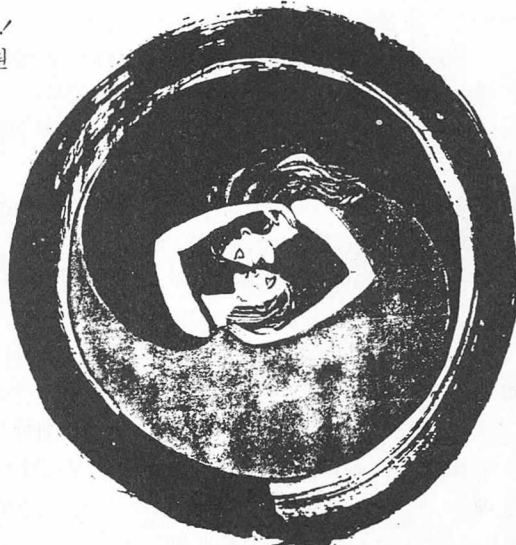
“네덜란드에선 우리 정부가 파견한 해외공보관이란 사람에게 고속도로도 뚫리고 근대화 된 발전상도 많은데 외국에까지 나와 왜 하필 곳이니 무당이니 하는 ‘미개한 것’들만 보여 주느냐고 푸념과 항의를 듣기도 했죠.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지만, 어쨌든 저는 우리 민속극을 서재 속에 가둬두지 않고 국내외적으로 널리 알려왔던 일에 보람과, 더 크게는 즐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선지 李교수는 주위사람들로부터 “놀이구경하러 다니는 게 공부니 얼마나 좋으나”는 말을 들곤 한다고. 그 스스로도, 술하게 겪은 필드워크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즐겁게 공부하다보니 40년이 후딱 지나가버렸다”고 말한다. 요즘은 10월 중순 체코에서 개최되는 국제민속축전조직위원회(CIOFF) 참석 준비로 여념이 없는데, 해바라기꽃과 담쟁이덩굴이 잘 어우러진 서울 석관동 자택의 마당에서 매일 아침의 줄넘기로 건강을 다지고, 가끔씩은 40대부터 애용해온 파이프담배를 피워놓고 마당의 잔디밭을 거닌다.

슬하의 2남2녀가 모두 장성하여 위의 두 딸과 사위들이 각각 대학강단에 서고 있으며 밑의 두 아들은 건축가와 의사로 활동하고 있어, 李杜鉉교수의 가정 또한 그의 학문의 즐거움만큼이나 다복하다.

— 강철주기자

●제목이 필요없는 이유를 서점에서 확인하십시오 / 맨타크 치아 / 박상준 옮김 / 값 3,500원



욕망의 침대에서는 삶의 공허를 메꿀 수 없다!

「제목이 필요없는 책」

병든 시대를 위한 성성 공부

춘화春晝를 보고 있는 사람, 또는 포르노를 보고 있는 사람은 성성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성적인 것만을 찾는 치한이다.

진실한 사랑은 그들에게 아무 것도 아니다. 춘화나 누드 그림이 보다 그들을 흥분시킨다. 그것은 흥분이 가슴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머리 속에 있기 때문이다.



*이 마크는 마음의 눈으로 있는 그대로를 본다(如)는 뜻입니다.

서울·종로구 관훈동 192-13 성지빌딩 502호
☎ 739-2520, 738-7709